8년 불사 준비, 운문사 역사문화관 첫삽뜨다

운문사 10월 30일 역사문화관 기공식 개최

역사 문화 보존 교육 목적
1250건 성보 보존도 담당
명성 스님 "많은 노고 감사"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국내 최대 비구니 교육도량인 청도 운문사(주지 운산)가 역사문화관 건립을 위한 첫 삽을 떴다. 운문사가 보관해오던 불교문화재를 체계적으로 보존하고, 역사와 문화를 전승하기 위한 공간이다.

청도 운문사(주지 운산)는 10월 30일 경내 종각 앞 광장에서 '운문사 역사문화관 기공식'을 봉행했다.

운문사 종각 앞마당에서 진행된 기공식은 삼귀의와 반야심경, 경과보고, 환영사, 격려사, 축사 및 시삽 순으로 진행됐다.

이날 기공식에는 팔공총림 동화사 회주 의현 스님, 운문사 회주 명성 스님을 비롯해 율주 일진 스님, 주지 운산 스님, 운문사승가대학 총동문회장 동언 스님, 조계종 총무원 前문화부장 성공 스님, 이달희 경북경제부지사, 김하수 청도군수, 김선옥 불교여성개발원장, 김성규 법륜교수불자회 고문, 장세철 동화사 신도회장, 박순곤 운문사 신도회장 등 300여 명이 참석했다.

운문사는 총 1250건의 불교문화재를 소장하고 있는 사찰이지만 소장 유물을 보존, 관리, 활용하는 시설이 미비했다. 또 운문사는 비구니 스님들의 역사와 문화 보존 및 전시 필요성도 느껴왔다. 이에 운문사는 2015년부터 종합정비계획을 세우고 시발굴조사와 학술세미나를 개최해 왔다.



국내 최대 비구니 교육도량인 청도 운문사(주지 운산)가 역사문화관 건립을 위한 첫 삽을 떴다.

운문사 회주 명성 스님은 이에 대해 "이날의 기공식이 있기 까지 8년의 세월이 흘렀다. 운문사 역사문화관의 건립에 임해 준 주지 운산 스님을 비롯한 많은 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주지 운산 스님은 "2017년 건립 예산 신청과 함께 자부담금을 모연하기 시작했다. 2021년 사업비 교부 결정으로 불사가 이렇게 첫 삽을 뜨게 됐다. 여러 어려움에도 역사문화관 건립 불사가 원만성취 되도록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동화사 회주 의현 스님은 격려사를 통해 "비구니 스님들의 전통 강원을 개설하고 운문사의 오늘이 있기까지 노고를 아끼지 않은 회주 명성 스님의 희생이 있었다. 이번 역사문화관 건립으로 비구니 승가의 발전 계기가 마련되길 기원한다"고 말했다.

김하수 청도군수도 축사를 통해 "운문사 역사와 전통문화를 체계적으로 전시 보존하고 교육하며 홍보하는 문화공간 건립은 시대 사명"이라며 "운문사가 지닌 유구한 역사와 비구니 도량이라는 독특한 문화가 후세에도 잘 전달되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만희 국회의원은 "운문사는 청정한 교육도량으로 한국불교계에 큰 역할을 해오고 있다. 이런 사찰에 변변한 문화전승공간이 있지 못했다는 점에서 오히려 송구한 마음"이라며 앞으로 남은 불사과정에 물심양면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을 다짐했다.

한편 이날 기공식에서는 운문사승가대학 총동문회장 동언 스님이 운문사승가대학 동문들을 대표하여 역사문화관 건립 불사기금으로 3000만 원을 주지 운산 스님에게 전달했다.

양산 미타정사 새롭게 문 열다

10월 30일 개원법회 봉행
신도 수계법회도 함께 열어

양산 미타정사(주지 여해)는 10월 30일 미타정사 대웅전에서 개원법회를 봉행했다.

개원법회에는 미타사 주지 여해 스님, 통도사 한주 도암 스님, 통도사 율주 해남 스님, 율원장 덕문 스님, 통도사 총무국장 현덕 스님, 송광사 前강주 일귀 스님, 불일암 덕조 스님, 송광사 율원장 대경 스님, 통도사 前교수사 진목 스님, 자비선원 동일 스님, 전법회관 진무 스님, 정법사 송정 스님, 명원 스님, 통도사 강원, 율원 학인 스님, 김덕환 신도회장 등 사부대중이 참석했다.

행사에는 수계법회에 이어 개원 선언과 명종5타, 삼귀의, 반야심경, 육법공양, 격려사(前 송광사 강주 일귀 스님/통도사 율원장 덕문 스님), 축사(진목 스님/동일 스님/신도회장), 율주 혜남 스님 법문, 창건주 도암 스님 인사, 주지 여해 스님 인사, 내빈소개, 공지사항, 사홍서원, 회향 순으로 진행됐다.


양산 미타정사는 10월 30일 미타정사 대웅전에서 개원법회를 봉행했다.

통도사 율주 해남 스님은 법문에서 "〈화엄경〉에서는 한마음으로 일체도리를 알게하고 생사고의 중생들을 부처님 세계에 태어나도록 이끌라고 설한다"며 "보시는 젊은이들에게 길을 열어주는 후학양성"이라고 말했다.

미타정사 회주 도암 스님(통도사 한주)은 인사말에서 "청하기 어려운 스님들께서 많이 오셔서 감사하다"며 "그 마음을 담아 주지 스님과 함께 지역불교 발전에 이바지 할 수 있는 사찰로 발전시키겠다"고 말했다.

미타정사 주지 여해 스님은 "산사에서 포교당으로 자리를 옮긴 것은 부처님 가르침에 따라 부단없이 정진하고, 계를 지키기 위함이었다"며 "수계 및 개원법회를 통해 사부대중이 함께 어울려 정진하겠다"고 서원했다.

김덕환 신도회장은 "전국각지에서 무주상 보시한 신도들에게 감사하다"며 "염불, 명상, 스님법문, 담소, 휴식공간 등 시민을 위한 공간이 되길 서원한다"고 말했다.

성낙두 경남지사장

'청년불자, 미륵불을 만나다'

대불청 40차 불청대회 금산사서
3년 만의 대회에 큰 원력 모여

창립 102주년을 맞은 대한불교청년회가 제40차 전국불교청년대회(이하 불청대회)를 10월 29~30일 김제 금산사에서 개최했다. '청년불자, 미륵불을 만나다'를 주제로 금산사 처영기념관에서 진행된 불청대회는 회원 상호간 소통과 화합, 참여와 나눔과 함께 불국정토를 열어가기 위한 포석으로 마련됐다.

대회에 앞서 성악가 테너 이계향의 식전공연과 금산사 회주 도영 스님 특별법문을 시작으로 개회식이 시작됐다. 개회식에서는 대회기 입장, 우수회원 시상, 청년불자 결의 등이 이어졌다.

특설무대로 자리를 이동한 불청회원들은 3년만의 마음나누기, 국악 공연, 난타, 김용진 가수의 공연으로 대동놀이가 펼쳤다. 이튿날인 30일 오전 회향식과 함께 선운사, 내장사, 송광사 등 각 지구별 성지순례도 이어졌다.


'청년불자, 미륵불을 만나다'를 주제로 금산사 처영기념관에서 진행된 불청대회는 회원 상호간 소통과 화합, 참여와 나눔과 함께 불국정토를 열어가기 위한 포석으로 마련됐다.

금산사 회주 도영 스님은 특별법문을 통해 "대불청 대회에 참가한 사람들은 신구의 삼업을 청정히 닦고 불자답게 각자의 위치에서 참되게 살아가야 한다"며 "오늘 이 자리가 보살답게 보살로 거듭나는 자리가 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장석희 전북지구 회장은 "이번 불청대회를 통해 전국의 불교청년회 여러분들이 단합하고 화합하며 불교청년운동의 새로운 지평을 여는 자리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장정화 대불청 중앙회장은 대회사를 통해 "코로나19 전염병, 사회경제적 양극화 등 청년불자들이 어려움에 처해있다"며 "만해 스님께서 나라와 겨레를 위해 한 생을 바치신 것과 같이 청년불자의 깨끗한 마음으로 청년포교의 새 미래를 열자"고 역설했다.

전국비구니회장 본각 스님은 격려사를 통해 "승병장 처영 스님과 만해 스님의 정신을 이어 불교수호와 대중의 이익을 위해 더욱 힘써주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시상식에서는 손동대 회원이 불청대상을 수상했으며 구재완 회원이 자랑스러운 불청선배상을 수상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칠불사, 제2회 지리산 고혼위령재

하동 칠불사(주지 도응)가 10월 29일 칠불사 선다원 앞 광장에서 '지리산 고혼 위령재 및 꿩 방생 대법회' 봉행했다.

행사에는 주지 도응 스님, 울산학춤보존회 고문 백성 스님, 장유 스님, 성연 스님을 비롯한 스님들과 사부대중이 동참했다.

방생법회는 개회선언에 이어 삼귀의, 반야심경, 헌다 및 헌화, 행사소개가 이어졌으며, 사물놀이, 학춤공연 및 문화예술 공연도 진행됐다. 칠불사는 이날 영가 극락왕생을 발원하는 위령재에 이어 꿩 130마리를 방생하며 생명의 존귀함을 대중에게 전달했다.

주지 도응 스님은 "방생을 통해 업장을 녹이고 무탈하며 평온한 삶을 살아가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성낙두 경남지사장



김해 은하사 10월 28일 제9회 산사음악회

김해 은하사(주지 혜수)는 10월 28일 제9회 산사음악회를 봉행했다. 이날 산사음악회에는 주지 혜수 스님을 비롯해 가야불교문화원 대표 성남 스님, 불모사 동담 스님, 해성사 월도 스님 등 지역스님들과 민홍철 국회의원, 홍태용 김해시장 등 사부대중 1000여 명이 참석했다.

산사음악회는 타종 5타에 이어 법고무로 시작됐다. 주지 혜수 스님 인사에 이어 연합회장 성남 스님 인사말, 홍태용 김해시장 축사, 국회의원 축사, 붓다앙상블, GH윈드앙상블, 동담 스님의 공연 등이 이어졌다.

주지 혜수 스님은 "보다 많은 중생을 구제하고 김해불교가 융성하도록 함께 정진하자"고 서원했다.

성낙두 경남지사장


고성 옥천사가 10월 27일 진주 경상국립대학 칠암캠퍼스 2층 대회의실에서 '찾아가는 마음약방 콘서트—마음속의 진주를 찾아서'를 개최하고 시작을 알렸다.

고성 옥천사, 대학생 마음약방 콘서트 개최

10월 27일, 경상대 칠암캠서 300여명 동참

고성 옥천사(주지 마가)가 10월 27일 진주 경상국립대학 칠암캠퍼스 2층 대회의실에서 '찾아가는 마음약방 콘서트-마음속의 진주를 찾아서'를 개최했다.

지역 대학생의 마음을 위로하는 토크콘서트로 진행된 이번 행사에는 옥천사 주지 마가 스님, 행불선원 월호 스님, 달마사 해일 스님, 김용진 경상국립대 교수불자회장, 배설화 진주경상국립대 불교학생회 회장, 김봉규 청담사상연구소 소장, 안정임 진주불교회관 부이사장, 박효종 포교사단 경남지역단 이사, 권현옥 후원회장, 진주불교청년회, 진주교대불교학생회 등 사부대중 300여 명이 동참했다.

행사는 개회, 삼귀의, 반야심경, 인사말, 내빈소개, 법문 순으로 진행됐으며 개최 취지 및 행사 안내 등으로 진행됐다. 첫 시작을 알린 이번 행사는 행불선원 월호 스님의 법문과 김무한 찬불가수의 공연을 선보였으며, 이어 11월 24일에는 영화 '불효자는 웁니다' 영화상영 및 마가 스님의 '자비명상' 법문, 인디밴드 요술당나귀 최진규(라마) 가수의 공연이 진행될 예정이다. 마지막 일정인 12월 29일에는 광우 스님의 '나무아미타불! 노래하자' 법문과 비구니 현진 스님의 공연이 이어진다.

마가 스님은 인사말에서 "옥천사 주지 소임을 맡아 지역포교와 대학생 불자들과 소통하고 열린 법석을 통해 이 시대 힘겹고 고통 받는 사람들의 마음약방으로 역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월호 스님은 특강 보시금을 학생들의 포교 활동비로 지원해 의미를 더했다.

성낙두 경남지사장

군산 성흥사, 16나한 점안법회

군산 성흥사(주지 보위)가 11월 1일 16나한을 조성하고 점안법회를 봉행했다. 점안법회에는 성흥사 회주 송월 스님과 주지 보위 스님을 비롯해 보선 스님 등 지역 스님들과 김승수 신도회장 등 불자들이 참석했다.

송월 스님은 "모두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힘든 시기지만 기도와 수행으로 위기를 극복해 나가자"며 "성흥사가 지역 전법활동과 신도 신행활동의 중심사찰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군산 대표 기도도량인 성흥사는 이날 16나한 점안을 통해 석가모니불, 사리탑, 부처님 십대제자, 관음보살, 지장보살, 500나한 등을 두루 갖춘 사격을 지니게 됐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제1회 (사)세계불교승황성 창립 대법회

(사)세계불교승황성 창립 대법회가 10월 29일 부여 마강사서 봉행됐다. 법회에는 승황 홍산 해전 스님, 태종사 조실 도성 스님, 화쟁교단 이사장 정암 스님, (사)대한생활불교회 이사장 재원 스님 등 300여 명이 참석했다.

승황 홍산 해전 스님은 법어에서 "뜻깊은 선가의 전통 속에서 (사)세계불교승황성을 설립하고 세계 속의 한국불교 위상을 재정립하고자 하는 법석을 마련하였다"며 "정중무상 선사의 계정혜(戒定慧) 총지문을 기억하며 호국승병과 호국영령을 위한 천도의식과 국가안녕, 경제부강 기도 법회를 세계만방에 고한다"고 설했다.



노덕현 기자